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은혜원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일 시	2021년 12월 22일(15:00)	장 소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참석자	박광식, 이신숙, 김용철, 장남진, 박민재(5명)		
금일안건	1) 하반기 인권보장점검 결과보고 2)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회의내용	■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박광식 단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한다.) ■ 하반기 인권보장점검 보고 ○ 박광식 단장 : 우리 인권지킴이단이 발족한 후 그동안 특별히 활동한 것은 없지만 원내에 근무하는 직원 인권지킴이로서 생활인들이 직원이나 같은 생활인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며 생활해 왔습니다. 이번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 까지 생활인 인권보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자는 의무실, 여자생활관 각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이 남녀 대상자 10명씩을 선별하여 진행했습니다. 인권보장 점검을 할 때 개인의 의식 차이로 인해 인권 침해냐 아니냐가 달라 질 수 있고 직원들도 생활인에 따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모든 면에서 평균 수준에 속하는 생활인을 선별하여 진행했습니다. 나눠드린 「생활인 인권보장점검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인권점검을 직접 하신 김용철단원이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단원 모두가 「생활인 인권보장점검표」를 검토하다.) ○ 김용철 단원 : 총 2항목 20문항에 대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점검하였는데 은혜원 생활인의 인권상황은 매우 양호합니다. 지역사회 접근권에서 충족이 6명, 보통이 6명, 불량 이 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인만 자유롭게 외출을 나갈 수는 없고 보호자나 직원이 동행 할 때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외출의 자유권은 매우 부족합니다. 실제로 혼자 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인은 한 두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보장권이나 종교 생활 보장권의 경우 20명 모두가 만족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참여에 강요받지 않고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생활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권을 보면 모두 충족하다는 답변을 보였으나,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건강검진 주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타 시설에 대한 불편 및 불만 사항”과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도 모두 별로 할 말이 없		

회의내용	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점검자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은혜원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이신숙 단원 : 맞습니다. 저도 점검자 입장에서 “기타 시설에 대한 불편 및 불만 사항”과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모두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을 하며 지내는데 어려움없고 편하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다보니 개개인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생활인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도움을 드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혜원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활인들이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며 한발 더 다가가 생활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광식 단장 : 지속적인 인권 점검을 통하여 생활인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일 없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단원 전체 : 없습니다. ■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 박광식 단장 : 그럼 생활인 인권보장점검을 마치고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철 단원이 준비한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김용철 단원 : 정신 장애인이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삶을 결정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WHO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1. 정신보건의 증진 및 정신장애의 예방은 누구나 정신적 복지를 증진하고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법으로 이익을 누려야한다. 2. 기본적 정신보건의료의 접근은 누구나 정신보건 의료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알맞고 동등하며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며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3. 진단, 치료 선택 수용성의 결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신보건 평가의 원칙과 일치 하여야한다. 4.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건 의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 병원의료의 치료는 최소한의 제약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자기결정은 일의 발생 시 개입하기 전에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6. 자기결정 행사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권리(일반적 지식, 언어적인 능력, 장애에 따른 이해 부족 시)가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이신숙 단원 : 김용철 단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합니다.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은혜원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을 보면 모두가 자신이 선택하고 삶까지 결정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당연히 부여하되 생활인들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남진 단원 : 동의합니다. 모든 것을 직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되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이 개입하고 도움을 주어 생활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철 단원 : 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의 개입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의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정신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권익의 보호 및 자율성을 중요시하며 모든 치료 및 활동에 정신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치료계획수립에 정신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하며 또한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권리에 보호자(가족 및 친지)의 참여를 시키고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 및 지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원 전체 : 동의합니다.

○ 박광식 단장 : 우리 직원들이 1년에 4시간의 인권교육을 받고 있고 근속년수가 쌓이면서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회의시간에 생활인 인권 존중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활인으로부터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은 있어도 직원이 생활인을 폭행한다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잘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원 모두가 생활인 인권 향상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 주시고 생활인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폐회

○ 박광식 단장 :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단원 모두 기명날인하다.)

2021년 12월 22일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인권지킴이단

단 장 : 박 광 식 (인)

단 원 : 이 신 숙 (인)

단 원 : 김 용 철 (인)

단 원 : 장 남 진 (인)

단 원 : 박 민 재 (인)

은혜원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